

시사

정치

폭우로 DMZ에 매설한 지뢰 유실...軍, 8발 찾아내 제거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8.13 14:28

8발 모두 한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



지난 7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수해 피해 마을에서 육군 5공병여단 장병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빗물에 쓸려 내려왔을지 모르는 지뢰를 찾고 있다./육군 5군단 제공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돼 있던 지뢰가 최근 집중호우로 남북 접경지역으로 떠내려오고 있다. 군 당국은 탐색을 통해 13일까지 유실된 대인지뢰 8발을 찾아내 제거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전방지역에서 현재까지 총 8발의 지뢰를 수거했다"고 말했다.

발견된 지뢰 8발 모두 한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연일 이어진 폭우에 지뢰지대에서 떠내려왔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달 초부터 6개 시·군(파주·연천·화천·인제·양구·철원)에서 대대적인 지뢰 탐색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도 병력 700여명과 장비 320여대를 지뢰 탐색 작전에 투입한다.

토익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TOPI 해커스인강



- AD "운동" 하지마세요!! 살 빠지는 세포발견 돼.. -51kg 감량 성공 화제!!
- AD [화제] "혈당 체크는 끝났다" 당뇨 병원 안 가도 돼..의학계 발각!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